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15>

전회에 소개한 바 있듯이, 불교경제사상 혹은 불교경제학이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한 지는 이미 30여년을 넘기고 있다. 불교경제학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한 층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불교경제 사상이냐? 그 기본적인 배경으로서 기존 현대경제학과 미국식 자본주의의 파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현대 경제학의 파탄론이 제기된 것은 영국의 경제학자 로빈스(Robbins, L.G.) 여사가 1971년 미국 경제학회 연차대회에서 '경제학의 제2의 위기'란 주제로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대해 비판과 경고를 하면서부터 경제학의 위기가 되풀이 되어 제기됐다. 영국 왕립경제학회 회장이었던 브라운(Brown, E.W.) 교수도 왕립경제학회에서 한 '경제학의 미발달'이란 연설에서 "과거 눈부시게 발전한 경제학은 시대의 가장 긴급한 과제에 극히 일부에만 공헌하고 있다"고 기술한 일이 있다. 이것도 슈마허에게 대면 시킨다면 "사실대로 말하면 공헌은 제로(zero)였으므로 극히 일부의 공헌이라는 것은 과찬이다"고 말할 것이다. 현대경제학은 왜 유효성을 잃어버린 것일까? 슈마허의 다음 지적이 적절한 해답이 되지 아닐까? "경제학이 다루는 것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들고 소비하는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이다. 무수한 질적인 차이를 굳이 무시하지 않는 한, 경제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질적 차이를 전부 무시해 버리면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더더욱 이 이론이 몽땅 헛것(不毛地)이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어떠

한 의미인가. 다음의 지적을 살펴보면 하자.

"수량적인 방법으로 어떤 나라의 GNP(국민총생산)가 5% 증가한 것이 실증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증가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계량경제학자는 대답을 피한다(중략). GNP의 증가는 무엇이 증가되었느냐 라거나 그 이익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인가 라는 것과 관계 없이, 잘한 것(善)으로 결정되고 마는 것이다. 병적인 성장, 불건전한 성장 내지는 파괴적, 파멸적인 성장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결함을 내포하는 현대경제학이고 보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에 적절하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자명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의 과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사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제란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사상은 어떠한가. 그 키워드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고자 한다.

- ① 환경 = 경제성장시대에서 지구환경시대로의 전환기인 오늘날은 지구환경의 보전과 창조야말로 최우선과제이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② 풍요로움 = 21세기에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진짜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
- ③ 삶의 보람 = 한 사람 한 사람의 보람 있는 생활 방식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 ④ 비폭력 = 세 개의 비폭력 즉 평화공론이 확보 되는 일이 이상 세 가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조건이다. 전쟁, 핵확산, 살육, 인권무시, 억압, 차별, 빈곤, 자원, 에너지의 낭탈, 낭비 등의 폭력이 이

현대경제 파탄으로 불교경제학 관심 높아져

주류경제학 토대위에 효과적인 불교사상 적용이 과제



그림 · 김필원

지구상에서, 이 사회에서 소멸되는 상태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비폭력과 평화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가.

이상의 키워드에 관해 현대경제학은 이미 적절한 처방전을 만들기엔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경제학을 어떻게 재구축하면 될 것인가?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토대위에 불교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 적용해 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다음에

서 불교사상과 경제사상과의 접점 혹은 융합에 관하여 몇 가지 고찰하고자 한다.

일체중생 실유불성, 초목국토 실개성불(一切衆生 悉有佛性, 草木國土 悉皆成佛)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부처의 생명, 불성(佛性)을 가지는 데에 존재 의의가 있다. 또 초목도 산천도 그 대대로 진리(眞)의 지혜와 자비의 모습(相) 아닌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현대풍으로 알기 쉽게 독해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만물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결국 상하관계, 친구관계에 있다. 또 인간은 분디 산림, 들판, 호수와 강, 대해 등 자연으로부터의 은혜와 자원으로 살아왔다. 자연과 인간은 대립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이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을 지배하려는 것은 오만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이야말로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불교의 '불살생(不殺生)'을 살리는 것과 통한다. 불살생이란 동식물의 살생 전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 이상의 무분별한 살생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취미와 오락으로서의 수렵 어획을 부정한다.

"파리가 손을 비비고 발을 비비다"는 어느 시인의 시 구절이 있다. 목숨은 모두 평등하다는 뜻이며 무익한 살생을 훈계한 구절이다. 오늘날 필요이상 전개되고 있는 무익한 살생이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인가? 공업화 우선주의에 따라 이 세상의 살아있는 온갖 것을 존중하는 바른 삶의 태도를 잃은 것, 제1차산업(농림수산업)을 경시하면서 자연, 환경 파괴

를 진전하는 것, 자원과 에너지를 강탈, 낭비하는 것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재물은 망하기 쉽고 다만 삼보(三寶)의 법(法)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재물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문명생활 전부를 가리키고 있다. 현대 문명인은 근대 공업문명의 편리함에 편승해 물질적 풍요로움을 만끽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문명생활의 오락(汚濁)에 휘말려 정신적 공허로움에 빠지면서 끝내는 인간성 자체의 파멸을 가져온다. 그러나 진리의 불법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욕지족(小欲知足)과 중도(中道)

소욕지족은 식욕과 집착을 단절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것, 욕망의 원천이 되는 번뇌·망상을 제압하고 정리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스스로 만족한 것(自足)'을 아는 것이 수승한 지혜(英知)이며, 반대로 만족함을 모르는 심정을 아귀(餓鬼)로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만족을 알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은 '만족함을 아는' 영지에 반하는 죄라고도 할 수 있다. 만족함을 아는 것은 실은 자기와의 싸움이며, 자신을 붙잡아 똑바로 세우고서야 비로소 즉(足)함을 알 수 있다는 것, 또 자족함을 행함으로써 붓다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중도(中道)는 반 '사치·방일(放逸)', 반 '금욕·고행'을 의미한다. 결국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욕망을 조정하고 물질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소욕지족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인동대 경제학과 교수

15 성찰질문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씨가 타계했다는 뉴스를 접한 날, 오래 전 700리 물길 한강 종영(縱泳)을 마치고 나서 그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뜬금없이 떠올랐다.

"잡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얼 하지요?"
 기자가 물었다. 이런 류의 장거리 수영에는 잡념이 가장 위험하다는 설명이 있고 나서의 일이다. 선사(禪師)를 향해 늘 깨어 있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고 묻는 학인(學人)의 질문과도 비슷하다.
 "숫자를 셉니다."
 조 선생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몇까지?"
 "하나, 둘, 그 이상은 세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세려다가는 다시 잡념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하나 둘" 그렇게 세어서 15만8,000번 팔을 휘두르는 거리를 조 선생은 열흘에 걸쳐 헤엄쳤다고 한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짧게 답했다.
 "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비웁니다."
 조오련씨는 인터뷰 말미에 앞으로 중국의 장강(長江) 양자강 종영(縱泳)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루어지지 못한 계획

허달의 불교와 코칭

이었다.
 코칭을 하다 보면, 고객이 강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고객의 생각, 감정, 그러므로 그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물결치며 흐르고 있다. 깊은 울렁이도 있고, 소용돌이도 있으며, 수초가 발목을 휘감는 강변 모래톱도 있다. 고객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코칭은 마치 물길을 경영하는 수영 선수와도 같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 흐름을 놓치게 되고, 흐름을 놓치면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같다. 코칭은 고객에 공감하지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경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객의 존재, 그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하나 둘' 그렇게 스트로크를 세는 것처럼, 코칭의 언어는 단순하다. 경청과 질문을 엮어서 때때로 인정, 칭찬으로 입파워 하면서, 때로는 메시

지로 막힌 물길을 풀어 함께 흐른다.
 고객의 간접한 언어를 듣는 능력은 자신을 비움에 있다. 당나라 현종의 총애를 받았던 미인 양귀비와 그 정인(情人) 안록산의 이야기를 담은 소염시(小鸞詩)라는 시를 한번 읽어 보자.
 "아름다운 그림자/ 그림으로도 그리지 못 하는데 / 깊고 깊은 규방에서/ 제 마음을 알리려네/ 자주 소옥(小玉)을 부르지만/ 소옥에게 일이 없고/ 오직 님께 제 소리/ 알리려는 뜻이라네."
 양귀비가 홀로 규방에 있어 안록산이 담밖에 있는 줄을 알고, 어서 월장(越牆)하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옆에 앉아 있는 시녀 소옥이를 애꿎게 불러대고 있는 장면을 읊은 것이다. 불자라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시는 오조법연 선사가 어느 거사에게 선(禪)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 인용한 이후 선가(禪家)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에서 격외언어(格外言語)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 시다. 이 시에서 양귀비가 시녀 소옥을 부르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이지 소옥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칭의 언어 역시 그러하다. 상대방의 준거틀(Frame of Reference)속에 들어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을 맥락적 경청(Contextual Listening)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문답 이야기가 나왔으니, 코칭에서 가끔 사용하는 뜬금없는 질문인 '성찰질문(Inquiry)'에 대해 알아보자.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일만한 잘 알려진 전문코치가 미국에서 열린 국제코치 연례대회에 참석했을 때다. 마침 등불한 세미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마스터 코치와의 코칭 시연(試演)이 있어서 본인이 자원해 코칭을 받게 됐다. 짧은 코치였기에 좀 무리하여 강의, 코칭, 사업계획 수립, 신규 고객확보 등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으므로, 마스터 코치의 코칭을 받으면 일의 우선 순위가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코칭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찰질문은 꼭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고객의 내면에 메아리를 일으킨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는 질문이다. 코칭은 스스로에게도 끊임없는 성찰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을 확장시키고,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세계를 추구한다.

■ 한국코칭센터 교수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 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명품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맑아지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거나, 무관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품의 특징 *

영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영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 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움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기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입)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10% DC